



Burning Hope mixed media on paper 118.8x84cm 2011

Missing You

이 재 정 Jae J. Rhee

2011. 10. 10 mon - 10. 23 sun 서울여성플라자 1층 스페이스 봄
am 10:00 - pm 7: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 tel. 02.810.5000 | www.seoulwomen.or.kr

초대의 글

안녕하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성작가 날개달기 프로젝트'는 시각예술 분야에서 다채로운 시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펼치고 있는 여성 작가들과 대중이 소통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이번 전시 [Missing You]는 '2011년 여성작가 날개달기 프로젝트' 공개 모집에서 선정된 이재정작가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작가는 의자라는 오브제(object, 물체)를 매개로 다양한 자신의 내면세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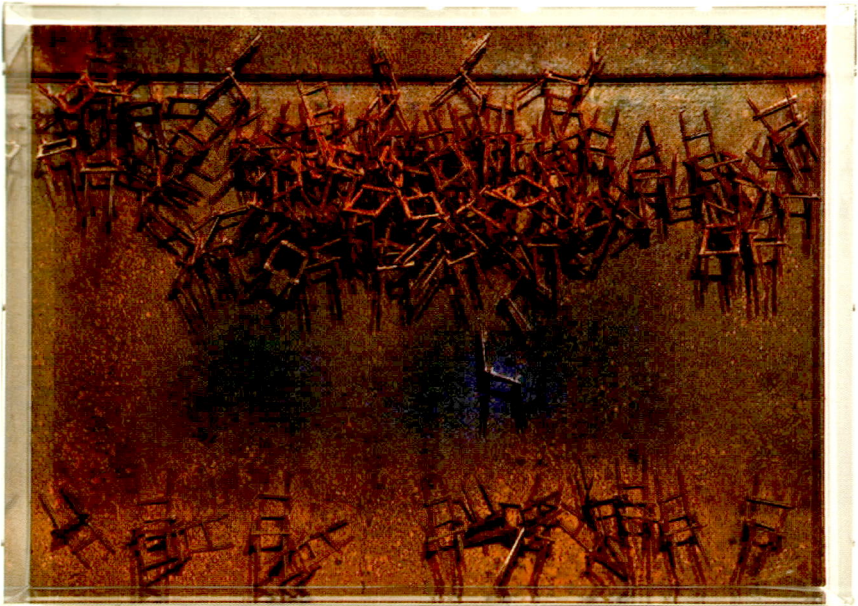
업무를 보고, 휴식을 취하고, 사색을 하는 나만의 공간인 의자.

의자는 편안함과 안식, 때로는 번민과 고뇌를 함께 하는 개인에게 독립적인 공간이기도 합니다. 작가는 이러한 의자를 반복적으로 겹치고, 쌓아올리고, 형클어트리며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자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일상의 물건을 통해 자아를 표현하는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킨 이번 전시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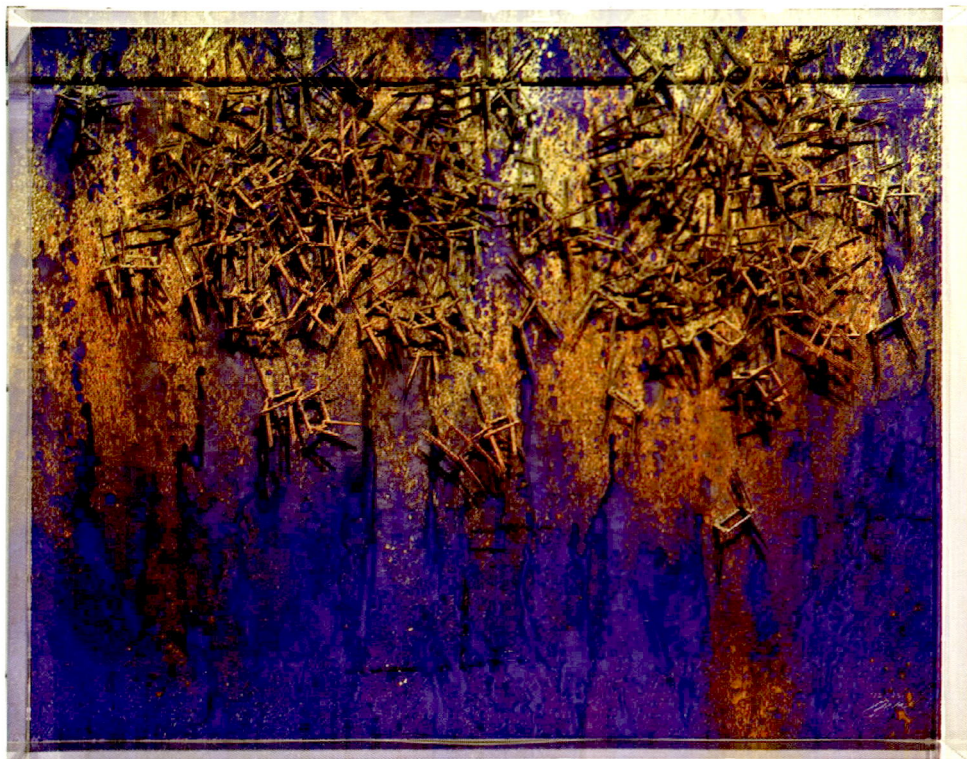
백현경



Burning Hope mixed media on paper 84x59.4cm 2010



Burning Hope mixed media on paper 84x59.4cm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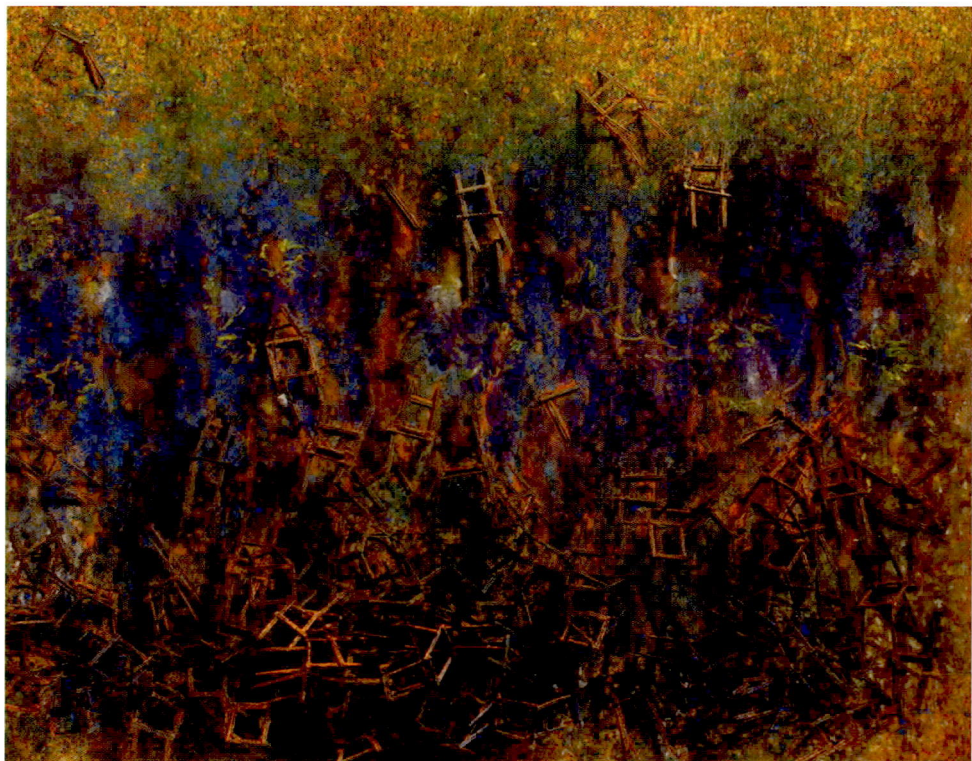


Burning Hope mixed media on paper 118,8x84cm 2010

Creating art is for me a process of finding peace in my life. The empty white space is like a priest hearing confession. I fill the spaces on my artwork with some good things, some bad things, along with sad things too. My personal "sense and sensibility" which rests at the bottom of my heart. I hide them there because I don't really want to look back.

I am traveling an unexpected road in my life. It has been a long journey. The chair is a symbol of the place I can return to: my home. When I finish those chairs, one piece at a time, I make my confession to the priest. As if filling my artwork with those past sins. And, I display my nostalgia, the love and affection of my family, those whom I love and have received love from.

The first work is layered as typography with pencil and ink: stories from my family, friends, and my previous companion. Each piece of those chairs expresses a sense of painful touch and sight which I have struggled to cope with in my life. My own chair, has a pleasing shape and tactile sense which can create a home for each of your hearts.



Burning Hope mixed media on paper 118.8x84cm 2011

작업은 시들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눈과 심성을 가다듬고 내가 아는 사람들, 내가 가진 사랑을 보다듬는 안식과 같은 것이다. 그 채워지지 않는 빈 여백은 내 고해성사를 들어주는 신부님이며, 그래서 내 작업은 내가 속태우고 미안해하고 절실한...가슴 한 칸에 먹먹하고 슬픈 일들로...그러나 다신 돌아가지 않을 그 사적 감정과 감성들로 짙 차 있다.

작업 안에서 의자라는 오브제는 부재-떠남인 동시에 채움의 공간이, 다시 돌아 갈수 있는 고향이다. 나무로 만든 자그마한 의자를 하나하나 완성할 때마다 고해성사로 인해 입 밖으로 내놓은 한웅큼의 추스림들이 여백을 채워가고 이전 그 오랫동안의 떠난 길 위에서 내 주변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시간 까지 들려준 사랑과 그리움들을 먹물을 이용해 펜촉으로 옮기고 덧씌우는 타이포그래픽적인 수작업으로 표현했다. 가슴 저 칸에 앙금처럼 가라앉은 평생 소화될 것 같지 않은 파편들은 내 의자가 가진 내 공간이 가진 촉각과 시각의 통합체이다. 그래서 그 의자는 안식인 동시에 또한 평생인 아픔이다.

그래서 내 의자는 시각적으로 제멋대로의 형태이고 찢리면 상채기나는 가시와 같은 촉각을 가지고 있다.



Missing You mixed media on paper 59.4x84cm 2008

이재정 Jae J. Rhee

Kingston University, Post Cert. in Communication design,
London, UK.
Roehampton University, MA. in Arts, crafts & design
education, London, UK.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IDAS) 박사과정

선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주성대학교 영상문화과 교수,
InterNet Associates, CA, USA./graphic designer,
Film Studio de Rene Calderon, Mexico/graphic designer

현재

Full Circle Film Co. Inc, USA&Mexico/Senior Art Director
선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외래강의

2011

여성날개달기 선정작가전-스페이스 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성플라자

New Artists 선정전-수호갤러리, 분당
초대작가 선정전-정부종합청사 문화갤러리, 서울
Portfolio 선정전-TheK 갤러리, 인사동
Burning Hope-GS 빌딩, 더 스트리트갤러리, 서울

2010

Missing You Now-갤러리 소울아트, 부산
Oasis of Hope-리하갤러리, 대전
Burning Hope-문신미술관, 서울
새로운 도약전-2010 청작화랑 공모선정작가-청작화랑, 서울
키미아트포유기획전-Breathing House Project
-Kimi Art, 평창동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293-47

mob. 010-6423-6034

E. wish2wise@yahoo.co.kr, has2bu@gmail.com



서울시여성가족재단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여성과 가족 모두 행복한 도시, 서울 실현을 위하여 서울시가 설립한 여성
가족전문기관입니다. 여성의 경험과 시각을 반영한 정책제안,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여성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여
여성이족친화적인 사회조성에 기여함으로써 여성과 가족의 행복지수를 높
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tel 02,810,5000 | www.seoulwomen.or.kr